

반도체가 이끈 실적... K자형 '뚜렷'

은행, '기술금융' 7.3조 늘어 미래성장산업 자금공급 강화

상장사 1분기 결산

코스피 흑자기업 504社... 23곳 ↑
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성장

코스닥, 영업이익 78.17% 늘어
2분기, 반도체 중심 실적개선 전망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1분기 'A'학점의 영업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것이다. 두 기업은 전체 상장사 합산 영업이익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했다. 실적은 'K자형'을 보였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코스피 상장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분기에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겠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의 실적은 1분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차별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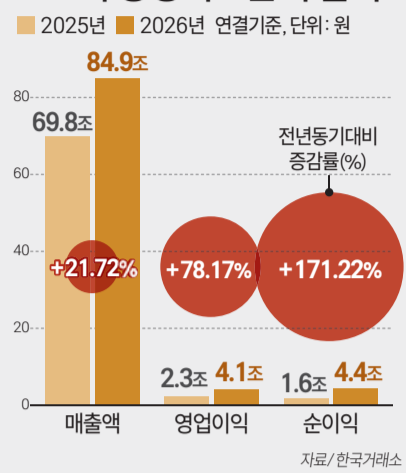
◆ 반도체 독주·양극화 여전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중 흑자기업은 504개사(78.87%)로 전년 동기(481사, 75.27%) 대비 23개사가 늘었다. 작년 동기 대비 흑자가 지속된 기업이 438사, 흑자전환한 기업이 10.33%였다. 적자기업은 135사(21.13%)로 92개사에서 적자가 지속됐고 43개사가 적자전환했다.

업종별로는 개별기준 20개 업종 중 15개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며, 전기·전자(매출 +81.38%, 순이익 +457.07%)와 의료·정밀기기(매출 +24.80%, 순이익 +159.02%)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반면, 건설(매출 -10.53%, 순이익 +125.97%), 화학(매출 -4.4%, 순이익 -

코스닥 상장사 1분기 실적



21.2%), 전기·가스(매출 -3.56%, 순이익 10.37%), 부동산(매출 -37.5%, 순이익 적자전환), 종이·목재(매출 -3.28%, 순이익 적자전환) 등은 매출액이 감소했다.

금융업은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51%와 28.82% 급증했다. 특히 증권업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41.19%와 139.33%씩 늘며 세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스닥 기업들도 비교적 무난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12월 결산법인 1273개 코스닥 기업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8.17% 늘어난 4조 128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84조 9461억원, 순이익은 4조 4342억원으로 각각 21.72%, 171.22% 늘어났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4.86%, 5.22%로 전년 동기 대비 1.54%포인트, 2.88%포인트 상승했다.

개별 기준으로 봐도 1595개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2조 6639억원으로 26.92% 개선됐다.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48조 7073억원, 4조 3145억원으로 8.49%, 119.50%씩 증가했다.

연결 기준으로 12월 결산 법인의 지난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22.03%로 전년 말 대비 9.23%포인트 늘었다.

분석 대상 1천273개 기업 중 흑자를 낸 곳은 752개사(59.07%), 적자를 기록한 곳은 521개사(40.93%)였다. 흑자 기업 중 187개사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565개사의 경우 흑자를 지속했다. 적자기업 가운데서는 120개사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고 401개사는 적자를 이어갔다

◆ "2분기에도 반도체 중심 개선세 지속"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초 올해 반도체와 코스피 영업이익은 각각 580조원, 867조원으로 전쟁 후 더 빠르게 상향됐다"며 "그러나 반도체 제외 업종은 코스피 대비 부진한 상태고,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은 코스피 전체의 60% 후반까지 상승하며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에도 반도체 독주 속에 코스피 상장사 실적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에너지프리미엄 비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개선이 전체 기업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1분기 반도체 가격상승에 힘입어 코스피 제조업 매출액성장률이 전년 대비 19.8% 높아졌고, 4월에도 한국수출금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매출성장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2분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의 실적은 1분기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차별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잔액기준, 35개월 만에 최고치
부동산 중심서 '생산적 금융' 전환
RWA 가치치 조정... 신규대출 확대

올해 들어 은행권의 기술금융이 7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술 중심의 기업에 대한 대출이 급증세를 보인 영향이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26조 3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18조 7298억원)과 비교하면 3개월 새 7조 3005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1년간 늘어난 16조 4350억원의 절반수준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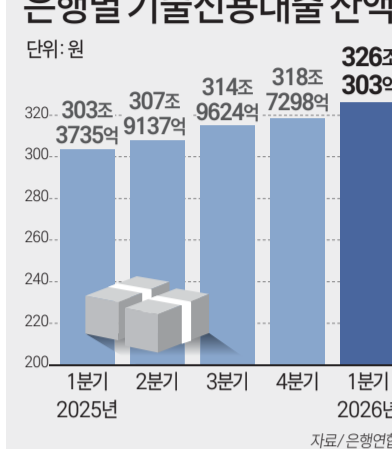
잔액기준으로 보면 2023년 4월(327조 4149억원) 이후 35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7월 300조원 대에 머물던 잔액은 8월 들어 311조 936억원으로 310조원대까지 늘어난 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신용대출은 기술이 있으나 담보가 없는 기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내주는 대출을 말한다. 각 은행은 기술 신용평가(TCB)를 바탕으로 기업에 신용대출을 내준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지원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은행권 역시 기술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고, 기술력 중심의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술신용대출 건수도 70만건을 넘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대출 건수는 70만 5622건으로 지난해 말(70만 741건)과 비교해 4881건 증가했다.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잔액



은행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IBK기업은행 133조 9493억원(27만 6415건) ▲신한은행 44조 6517억원(8만 2062건) ▲하나은행 35조 2553억원(7만 4536건) ▲우리은행 32조 3378억원(4만 5404건) ▲국민은행 31조 1324억원(7만 1522건) 순으로 많았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치치 조정 등에 따라 신규 기업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 상향조정했다.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기업대출 잔액은 직전월 대비 6조 2908억원 늘었다. 대기업대출 3조 8900억원,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2조 4008억원 등 모두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조 5669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 주담대의 증가 규모도 1조 9104억원으로 1조원대에 머물렀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그 이름만으로도 품질을 인정받는

安心 0%염료 0%첨가제 100%

영양농협

고객센터 건고추 전화
☎ 054-683-2286

고객센터 고춧가루 전화
☎ 054-682-2004

고객센터 팩스

농협
351-0717-6550-53

예금주: 영양농협 가공사업소
(고춧가루 주문시)

"코리아 프리미엄 현실화... 투자 골든타임"

구윤철 부총리, 英 런던서
'대한민국 투자설명회' 행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옛말이라고 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이른바 '대한민국 IR(투자설명회)' 행사를 갖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런던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3월 일본 도쿄, 4월 미국 뉴욕에 이은 부총리 주관의 국가 투자설명회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특례 도입 등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과거의 단어"라며 "코리아 프리미엄이 새로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이 한국 투자의 골든타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AI 대전환" 시대에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의 전략적 위치 선점 ▲외환·자본시장 전반의 개혁 가속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비전

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HBM), 2차전지, 전력반도체, 센서 등 퍼지컬 AI 구현에 필수적인 공급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춘 핵심 국가'라고 했다. 또 "우수한 IT 인프라와 디지털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AI 접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적 경쟁력과 자본시장 개혁이 결합돼,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170% 이상 상승한 상황도 전했다. 또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6단계 상승해 전세계 7위 규모에 도달했고,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약 109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고도 했다.

한 참석자는 중동 사태 등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중동 상황 등에 대한 단거기적 공급망 대응을 넘어 국내 생산기반 확충, 비축확대, 해외 생산능력 구축, 수입다변화 등 근본적 공급망 구조개선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